

우나무노(Miguel de Unamuno)의 哲學과 生의 悲劇的 感情

金 顯 場

(西語西文學科 副教授)

<목 차>

- | | |
|---------------------------|----------------------|
| I. 序 論 | II. 죽음과 영혼불멸 |
| II. 文學과 哲學과의 사이 | III. 作品에 나타나는 죽음의 묘사 |
| III. 哲學的 메시지의 전달체로서의 文學作品 | IV. 結 論 |
| IV. 生의 비극적 感情과 고뇌 | *參考文獻 |
| V. 宗教와 信仰의 문제 | |

I. 序 論

現代 스페인의 저명한 文學史家들인 발부에나·프랏, 호세 마리아 보르케, 프란시스코·리코, 가르시아·로베스 등은 우나무노의 스페인 文學史的인 位置를 論함에 있어 그가 98 세대의 대표적인 作家라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¹⁾ 그러나 이들 文學史家들의 의견을 빌리지 않는다 해도 스페인 文學의 금자탑인 세르반테스와 로베 데 베가 이후 스페인 文學을 온세계에 다시 빛낸 榮光의 98世대의 가장 대표적인 작가가 바로 우나무노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同時에 흥미로운 사실은 우나무노는 스페인 哲學史에서도 20世紀 스페인을 代表하는 哲人으로서 인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훌리안 마리아스(Julián Marías)는 그의 <現代 스페인 哲學>(Filosofía Española actual)에서 그 代表的인 人物로 우나무노, 오르메가, 모렌테, 수비리 등 네 사람을 다루면서 우나무노를 가장 비중있게 서술하고 있다. 세네카以後 우나무노는 오르메가와 함께 스페인의 가장 위대한 哲人이라는 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 文人으로서의 우나무노는 어떤 종류의 作品을 남겼는가? 그는 詩, 소설, 희곡, 수필 등 모든 문학장르를 섭렵하고 있다. 哲學書는? 엄격히 말하여 그는 전통적 의미의 어떠한 哲學서적도 남기지 않았다.

1) Valbuena Prat; *Historia de la literatura Española*, Ed. Gustavo Gili.
José María Borque; *Historia de la literatura Española*, Taurus Ediciones.
Francisco Rico; *Historia y crítica de la literatura Española*.
García López; *Historia de la literatura Española*, Editorial Crítica, Editorial Vicens-Vives.
등 참조.

〈生の 비극적 感情〉(Del sentimiento trágico de la vida)이 哲學的인 에세이라 할 수 있을 뿐이다. 상기 저서는 순수한 철학적 테마 이외에도 종교, 文學, 예술, 미술 등등 다양한 分野에 대한 우나무노의 박식함이 노출되어 있는 에세이다.

문제는 우나무노가 文人이나 哲人이나를 가리려 할 때 제기된다. 다시 말하여 우나무노의 作品들이 文學書나 哲學書나 라는 질문을 던질 때 제기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나무노는 전통적 시각에서 볼 때 常識的인 의미의 文人도 아니요 상식적인 哲人의 패턴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나무노의 이러한 모호성과 양면성은 많은 評論家들의 주의를 끌여온 것이 사실이다.

本論文에서는 이러한 우나무노의 모호성을 분석하고 그가 말하는 生の 비극적 감정은 무엇이며 나아가 그의 思想의 核이 무엇인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Ⅱ. 文學과 哲學과의 사이

우나무노의 作品들은 一見해서 험란한 文學作品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들 作品을 좀더 상세히 관찰하면 그는 그의 作品에서 심원한 哲學의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런 뜻에서 비록 막연하고 不充分한 것이지만 그의 作品들은 哲學的이라 할 수가 있다.

우나무노의 文學作品 속에 哲學的인 테마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哲學적인 테마는 一般的으로 철학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우나무노의 作品들이 진정으로 의도하는 바가 과연 무엇이며 그 意味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의 不安하면서도 모호한 言語에서 그에게 있어 文學과 哲學은 어떠한 상관 관계를 가졌나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우나무노는 항상 말하기를 그의 作品世界는 역설적이고 고뇌가 있으며 상호 모순되는 面이 많다고 했다. 어떤 評者들은 우나무노의 作品이야말로 哲學이요, 文學이며, 詩요 宗教라고 말한다.

실제로 그의 作品世界에는 위와 같은 多樣한 요소가 상호 교차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구체적으로 分類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우나무노는 그의 〈生の 비극적 感情〉에서 강조하기를 그는 결코 엄밀하게 科學的인 作品을 쓸 생각도 없고 또 그럴 이유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 즉, 순수한 형이상학적 作品을 쓸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詩나 환상이나 神話 정도의 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哲學이라고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의 작품이 순수하게 文學的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確信을 갖지 못하고 있다. 그는 自身の 이러한 모호성, 양면성으로 하여 많은 고민을 가졌다. 우나무노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나의 一生을 통하여 엄밀한 의미에서 과학적이고 교육적인 작품을 쓰진 못할 것이다…그러나 나의 일부 과학적인 시도때문에 文人들의 世界에서 볼 때 나는 침입자로 보일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한낱 三流作家에 지나지 못할 것이다. 또한 과학자들의 세계에서 볼 때에도 나의 一部 文學的 시도 때문에 나는 역시 침입자에 불과할 것이다.”²⁾

우나무노의 作品을 종합해 보면 그가 哲人으로서의 어떤 體系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合理的인 單一性을 유지하고 있지도 않다. 이런 점으로 보아 우리는 그를 金言의 作家라고 생각하여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金言은 긍정적인 思惟의 정지가 있어야 되는데 우나무노는 전혀 그렇지 않다. 金言은 形式的으로는 허위다. 왜냐하면 그 自體로서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思想의 고립화는 진정한 의미에서 哲學이 아니다. 우나무노에 있어 테마의 고립은 완전한 고립이 아니고 연속이다. 그의 사유는 정적이 아니라 그의 내밀한 고뇌와 역설에 휩싸여 부단히 움직이고 있다. 또한 우나무노에게는 아무것도 결론적이지 않고 끝맺음이 없다. 오로지 계속적이고 연속적일 뿐이다. 그의 哲學的 주제는 매우 다양한 것 같으나 좀더 상세히 살펴보면 비록 합리적이지는 못하지만, 놀랍게도 單一性을 유지하고 있다. 그의 어떤 작품을 보든지 그의 사상의 單一한 분위기를 느끼게 된다.

매우 역설적이고 反理性的인 작가인 우나무노가 그 어느 體系의인 작가보다도 그의 思想的 주제에 있어서는 놀라울 정도로 單一性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성향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가 그의 作品에서 반복적으로 다루고 있는 테마들은 哲學의 本質的인 테마와 매우 一致하고 있다. 이 사실은 그의 사상이 철학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한다. 첫째, 적지않은 그의 作品들은 오로지 철학적인 문제점만을 다루고 있다. 둘째로, 그는 그의 作品에서 哲人, 종교인, 神學者들 중에서도 특히 哲學的인 性向을 가진 人物들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데카르트, 스피노자, 파스칼, 칸트, 헤겔, 베르그송, 키에르케고르, 윌리엄 제임스 등등이다.

우나무노의 哲學的인 思惟는 上記 인용한 人物들이 전개하였던 철학적인 思惟와 일치함과 동시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우나무노는 대단히 철학적인 작가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우나무노의 作品들은 그 스스로의 資質로서 文學的인 作品인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의 作品들은 그 무엇보다도 文學的인 作品인 것이다. 그의 주된 장르는 에세이, 詩, 소설, 희곡이다. 그러나 어떤 작품이 되었든 우나무노의 作品들은 단순한 美學的 作品 以上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은 어찌할 수 없다. 즉, 그는 그의 모든 作品에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려 한다는 깊은 인상을 독자들에게 주고 있다. 그렇다고 우나무노의 作品들이 어떤 철학적인 思想에 詩나 소설, 드라마 등의 의상을 입히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함정에 빠지기에는 그는 지나칠 정도로 예술적이고 文學的인 감각을 갖고 있었다.

2) Miguel de Unamuno; *Amor y Pedagogía*, Colección Austral, Espasa-Calpe, 1984, p.137.

Ⅲ. 哲學的 메시지의 전달체로서의 文學作品

우나무노는 作品을 구상할 때 순수한 미학적·예술적 성격의 작품만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언제나 그 무엇인가를 제시하려 한다.

그는 1925년에 출간된 <고독>(Soledad)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모든 인간에게는 단 하나의 同一한 문제밖에 없다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즉, 나의 문제이며 동시에 모든 사람들의 문제이며 또 당신의 문제이며 他人의 문제이고 모든 사람들의 문제로서 즉 우리들 한사람 한사람이 죽었을 때 나의 意識과 너의 意識과 他人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의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이다.”³⁾

우나무노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死後의 存在에 관한 문제이다. 동시에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뼈와 살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思惟의 주요한 대상이다. <生の 비극적 感情>의 여러 곳에서 우나무노는 살과 뼈를 가진 사람, 낡고 고통받고 죽고 먹고 마시고 놀고 잠자고 사유하고 사랑하는 인간, 이 구체적인 살과 뼈의 인간이 모든 철학의 主題이며 至高의 객체라고 강조하고 있다. 우나무노는 生과 死에 관한 철학적인 의문을 다음과 같이 전개하고 있다:

“내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또 나를 둘러 싸고 있는 모든 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왜 완전하게 死滅하는 것을 싫어하고 내가 과연 죽게 되는지 혹은 그것이 결정적이 아닌지를 알고 싶어하는가! 만일 내가 죽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만일 내가 죽는다면 그 어떤 것도 無意味하지 않은가.”⁴⁾

이러한 우나무노의 의문, 그리고 탐구는 소설이라는 문학장르를 통하여 展開된다. 즉 소설은 또 하나의 哲學的인 탐색의 場이 되는 것이다.

哲學과 詩는 쌍둥이 자매라고 우나무노는 말한 바 있다. 우나무노에 있어 철학은 문학, 도덕, 신비주의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우나무노에 의하면 스페인인들은 그됨됨이 본질적으로 文學的이어서 哲學도 스페인에서는 文學으로 변형된다. 또 스페인에 형이상학이 있다면 그것은 신비주의이다. 신비주의는 상상적이고 감상적인 형이상학이다.

우나무노의 상기 사상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西歐 傳統哲學思想의 핵이었던 理性(razón)에 관하여 어떠한 見解를 갖고 있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우나무노에게 理性은 生の 敵이다. 즉 理性은 人間의 感情, 生の 熱望을 살해한다는 것이다. 이미 19세기 중엽에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는 生과 理性과 眞理의 關係에 문

3) Julián Marías; *Filosofía Española actual*, quinta edición, Colección Austral, Espasa-Calpe, S.A. 1973, pp.40-41.

4) Miguel de Unamuno; *Del sentimiento trágico de la vida*, Editorial Plenitud, 1965, Madrid, p.30.

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베르그송(Bergson)은 일보 더 나아가서 理性과 生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는 理性을 지성(Inteligencia)으로 그리고 生을 본능으로 표현하고 있다. 베르그송에 의하면 理性, 즉 지성은 生을 살해한다. 단지 본능에 가까운 직관(Intuición)만이 유연하고 개별적이며 흐르고 있는 生의 實在를 포착할 수 있다. 理性은 生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理性과 生의 문제는 베르그송 이전에 키에르케골이 심도있게 다루었는 바 우나무노는 키에르케골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는다.

키에르케골은 存在(existencia)의 實在와 合理主義를 비교하면서 말하기를 理性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有限한 生을 추상화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存在를 추상적으로 思惟함은 본질적으로 存在를 제거한다는 것이 키에르케골의 지론이다.

우나무노에 있어도 마찬가지다. 理性과 生은 완전히 相反되기 때문에 理性이란 도구를 사용하여 生을 포착하려 함은 生을 살해하는 것이며 살과 뼈를 가진 사람에게는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다. 또 사람이 죽으면 완전히 소멸하는 것인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의문을 만족시킬 수도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理性은 내밀한 生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우나무노는 文學 즉 에세이, 드라마, 小說을 통하여 그의 哲學的 사상을 展開하게 된다.

IV. 生의 비극적 感情과 고뇌

우나무노에게 있어 세르반테스와 돈키호테는 同一人이며 셰익스피어와 햄릿도 同一人이다. 같은 맥락에서 우나무노의 주요 작품들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우나무노 자신이라 말할 수 있다. <안개>의 주인공 아우구스또와 <순교자 聖마누엘·부에노>의 주인공 돈 마누엘이 그 좋은 예이다. 이들 두 주인공들은 우나무노의 고뇌와 哲學을 대변하고 있다. 生의 비극적 感情과 고뇌는 우나무노의 거의 모든 작품에서 주요한 주제를 이룬다. 특히 우나무노의 고뇌의 원천을 추적해 보면 生의 不滅에 대한 열망에서 기인함을 알 수 있다. 生의 불멸에 대한 열망을 통해 生의 비극적 감정과 고뇌가 잘 표출되는 作品으로 <순교자 聖마누엘 부에노>(San manuel bueno, mártir), <안개> (Niebla), <아벨산체스>(Abel Sánchez)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안개>의 주인공 아우구스또의 죽음에 대한 저항, 그의 창조자인 우나무노에 대한 저항에서 오는 고뇌와 비극적 감정은 그 결정을 이루고 있다.

<안개>는 1914년에 출판되었으며 우나무노의 대표적 에세이라 할 수 있는 <生의 비극적 感情>을 완성한 2年 後에 출판된 점으로 보아 우나무노의 성숙된 生의 개념이 잘 표현된 作品이라 할 수 있다. 이 소설 혹은 스설(Nivola)은 비극적이고 절실한 生의 고뇌를 묘사

하는 데 成功하고 있는 작품이다. <안개>는 픽션에 의한 창작의 절정이라 할 수 있다. 이 作品에서 우나무노는 많은 作中人物들을 설정하고 이들 인물들과 관계된 다른 인물들을 설정하며 우나무노 자신이 이들 모든 창조된 人物들에게 우월성을 갖는 창조자로서 군림한다. 이는 마치 모든 인간의 창조자인 神의 위치에 자신을 올려 놓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는 또한 우나무노의 不滅에 대한 결실한 열망의 좋은 결실이라 할 수 있다.

<안개>에서 모든 人物들은 아우구스또를 축점으로 하여 포진을 하면서 상호 유대를 맺는다.

이 人物들은 횡적 종적으로 연관을 맺음으로써 마치 '안개'와 같은 세계를 창조하고 있다. <돈끼호테>에서 세르반테스가 여러 종류의 소설을 삼입하듯이 우나무노도 <안개>에서 크고 작은 이야기들을 6개나 삼입하고 있다.

<안개>는 두 가지 주요한 要素에 의해서 生動하는 드라마化하고 있다. 즉 時間과 人格이다. 에우헤니아로 인하여 겪는 아우구스또의 고통과 고뇌, 아우구스또의 죽음에 따라 연속되는 오르페오(Orfeo)의 비극적인 죽음은 하나의 永遠이라 할 수가 있다. 무서운 永遠의 發顯이다. 이 소설에 있어 時間의 긴박감은 실로 결실하다. 죽음을 앞두고 분초를 계산하는 아우구스또의 초조함에는 오늘은 어제와 같이 내일은 오늘과 같이 永遠의 지루함이 있다. 인간이 홀로 서서 未來에 눈을 돌릴 때 永遠의 무서운 심연이 나타난다.

<안개>의 31章에서는 아우구스또가 마지막으로 우나무노를 살라망가의 저택으로 방문하는데 이는 作品의 주인공과 그 창조자와의 만남, 즉 인간과 神과의 관계를 제시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한 구절을 보자.

“그 영혼의 폭풍우는 무서운 고요속에 자살을 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끝났다. 모든 그의 불운의 원천인 자기 자신과 결별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의 목적을 수행하기 전에 난파한 자가 보잘 것 없는 나뭇조각이라도 붙잡듯이 이 소설의 저자인 나와 상의를 한번 해 보고 싶은 생각이 났다. 그 당시 아우구스또는 비록 단편적이거나 자살에 관하여 다룬 나의 수필 한편을 읽은 적이 있었고, 또 그가 읽은 나의 글들에서 받은 인상으로 해서 나를 한번 알고 잠시 말이라도 한 후에 이 세상을 하직하기로 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내가 20년을 살아온 이곳 살라망카로 여행을 와서 나를 방문하게 된 것이다.”⁵⁾

이 만남에서 우나무노가 시도하는 바는 人間 自身の 實在을 直視하게 하고 죽음을 뛰어넘으려는 人間的 욕망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극적 상봉 장면에서 實在적이고 구체적인 사무실, 서적, 초상화, 살라망가의 그의 집을 서술하면서 인간 生命의 限界성을 묘사하는 것이다.

우나무노는 자기를 찾아온 아우구스또에게 말한다 :

“너는 허구의 실재로서만 존재한단 말이다. 가련한 아우구스또, 너는 내 환상의 산물일 뿐이며,

5) 우나무노; 안개, 汎友社, 汎友세계문예선서 22, 金顯瑒譯, 1982, p.249.

너의 가장된 행운과 불행은 기록한 이야기들을 읽는 내 독자들의 환상의 산물이란 말이야. 너는 소설, 혹은 스설, 혹은 무어라 불러도 좋아, 의 인물에 불과해. 이젠 네 비밀을 알겠지.”⁶⁾

우나무노가 계속하여 아우구스또를 죽이기로 결심했다고 말하자 아우구스또는 공포에 질려 어쩔줄을 모른다.

“사실 저는 살고 싶습니다. 돈 미겔, 살고 싶습니다. 살고 싶습니다...”⁷⁾

아우구스또는 그의 생명이 作家인 우나무노에게 달려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아우구스또는 우나무노가 자기를 죽게 하려는 마음에 추호의 변함이 없음을 알고 최후의 결규를 한다:

“나를 죽게 하려고 창조한 것! 당신도 역시 죽을 것입니다! 창조하는 자는 창조되고 창조되는 자는 죽게 됩니다.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돈 미겔, 당신은 죽을 것이고 나를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도 죽을 것입니다! 죽는 겁니다. 결국은!”⁸⁾

生에 대한 이 열정, 영혼불멸을 염원하는 이 숭고한 노력은 가련한 아우구스또를 죽게 하고 만다.

以上에서 만들어지는 存在論的 公式은 분명하다. 즉 허구의 實體는 허구일 때, 꿈 혹은 소설일 때만 實在이며 하나의 生命이며 時間의 한계를 갖는 存在이다. 그리고 作家의 꿈으로서의 결과로 볼 때 여기에는 實在가 없는 것이다. 즉 자기가 홀로 서있는 存在가 아니라 空과 無에 빠지고 마는 기반이 없는 實體인 것이다. 이것을 人間과 神의 관계로 연계시킬 때 神의 입장에서 보면 人間도 그 實體가 없는 것이며 그의 창조자에 의지하며 결국은 죽고 만다는 사람의 運命을 감지하게 된다. 그래서 아우구스또가 말하기를 “神은 당신을 꿈꾸기를 증지할 것이다” 즉, 인간의 實在은 神性的의 꿈으로 한차원 우월한 자의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人間과 神의 관계를 作中人物과 作家의 관계와 연계시키고 있는 우나무노의 사상은 그를 항상 열광케 했던 스피노자(Spinoza)의 영향이 있다고 하겠다. 스피노자는 地上의 人間과 모든 事物의 實在을 부정하였으며 특히 人間에 있어 그 實體를 부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스피노자는 神에게만 오로지 이 實在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인간은 다른 사물과 같이 無限定으로 自己 存在 속에 存在를 지속하려는 끝없는 열망을 하고 있을 뿐이다. 사람은 자신이 영원을 원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바 스피노자는 이를 “cupiditas est ipsa hominis essentia”⁹⁾라고 부르며 우나무노는 永遠不滅의 열망이라고 부르고 있다.

우나무노의 고뇌는 키에르케골의 그것과 같이 人間の 有限性에 대한 절망에서 비롯된다.

6) Ibid., p.252.

7) Ibid., p.259.

8) Ibid., p.261.

9) Julián Marías; *Filosofía Española actual*. Colección Austral. Espasa-Calpe S.A., quinta edición, 1973, p.40.

意識은 사유를 하게 한다. 또 의식적이다 함은 한정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과 같다. 여기에서 우나무노의 철학이 분출된다. 意識속에 存在와 非存在가 있으며 자신의 의식은 동시에 자신의 안티테제가 된다. 有限한 存在 앞의 無限한 存在, 모든 것과 無, 이 변증법적 生의 비극의 감정이 바로 우나무노의 것이다. 이 비극적 감정이 심리적 절망을 가져온다.

우나무노의 고뇌는 不安과 不便의 표현이며, 存在와 生의 구체적인 조건에 적용할 수 없는데서 오는 것이다. 그러나 고뇌를 함으로써 진리를 찾을 수가 있다. 우나무노는 고뇌를 함으로써 모든 것을 정복하려 한다. 우나무노는 고뇌를 함으로써 神을 발견하고 나아가서 不滅을 얻게 된다.

V. 宗教와 信仰의 문제

우나무노는 20세기 초반 많은 西歐 知性人들이 그랬듯이 도그마에 입각한 카톨릭에 대한 저항심을 갖는다. 기독교인으로서의 우나무노는 카톨릭보다는 프로테스탄트의인 性向을 갖는다. 우나무노가 선호했던 종교인 및 종교학자들은 聖바울(San Pablo), 聖아구스틴(San Agustín), 聖女 테레사(Santa Teresa), 聖환 벨 라 크루스(San Juan de la Cruz), 聖익나시오(San Ignacio), 슬레이어마허, 하르나, 리철, 마르틴 루터 등이었다.

그러면 우나무노는 어떠한 宗教觀을 갖고 있었는가, 그의 말을 직접 들어보기로 한다 :

“신성과 神의 감정, 그리고 神에 입각한 신앙과 희망, 자비심 등이 뭉쳐졌을 때 종교를 낳게 한다. 神에 대한 신앙에서 사람에 대한 신앙이 生成되고 神에 대한 희망을 가질 때 人間에 대한 希望을 갖게 된다. 이는 神을 向한 자비심과 신앙심을 갖게 하기도 한다.”

그리고 神과의 관계, 神과의 내밀한 合一을 우리는 종교라 부른다.”¹⁰⁾

또한 영혼불멸에 대한 人間의 열망이야말로 人間이 종교를 갖게 하는 主原因이 된다 :

“내가 여러번 반복하여 주장했지만 영혼 불멸에 대한 열망, 이런 저런 형태로 우리의 개인적 人格의 意識이 지속되기를 희망하는 열망이야말로 마치 神이 存在하기를 원하는 열망처럼 종교를 낳게 하는 본질이 된다. 이런 불멸의 열망과 종교는 상호 별개의 것이 아니다. 본질적으로는 하나인 것이다.”¹¹⁾

우나무노에 있어 종교와 神은 인간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이며, 특히 인간의 영혼불멸에 대한 열망으로 해서 종교가 생성된다는 우나무노 특유의 종교관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우나무노의 종교관은 神의 絕對의 存在를 전제로 하는 카톨릭의 전통적 사상과는 相異한 것이다. 즉 우나무노에 있어 宗教의 출발점은 神이 아니라 人間이고 이 人間의 불멸에 대한 열망이다. 다시 말하여 神은 종교성의 직접적인 동기가 아니다.

10) Miguel de Unamuno; *Del sentimiento trágico de la vida*, opus cit. p.159.

11) Miguel de Unamuno; *Del sentimiento trágico de la vida*, opus cit. p.162.

〈생의 비극적 感情〉 4章에서 우나무노는 주장하기를 기독교가 종교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영혼불멸의 발견이라고 한다.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기독교의 뿌리이며 씨앗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신앙은 그리스도의 불멸에 대한 신앙심인 것이다.

우나무노는 〈나의 종교〉(1907)라는 수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의 종교는 생에서 진리를 찾고 진리속에서 생을 찾는 것이다. 비록 내가 살아 생전에 생과 眞理를 발견할지는 모르지만, 나의 종교는 신비와 부단히 피로를 모르고 싸우는 것이다. 나의 종교는 새벽 동이 틀 때부터 밤이 될 때까지 신과 투쟁하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아담도 신과 투쟁했다 하지 않는가. 나는 不可思議, 不可知論을 용납할 수 없다. 나에게서 그런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는 永遠한 無知를 거부한다……”

나는 승리에 집착하지 않고 나의 싸움을 계속할 것이다. 틀림없는 패배의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출정하는 군대나 백성들이 있지 않은가. 항복보다는 싸워서 죽는 사람들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는가, 이것이 바로 나의 종교이다.”¹²⁾

이러한 우나무노의 信仰觀은 〈생의 비극적 感情〉 第10章에도 잘 나타나 있다. 우나무노에게는 순수하면서도 무조건적인 신앙이란 不可能하다. 프로테스탄트의 대표적인 서적이랄 수 있는 훌리오 카후탄(Julio Kaftan)의 〈教義論〉(La Dogmatik)에서는 그리스도야말로 역사의 始作이며 도구이며 마지막이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永生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永生이란 것이 어떠한 것이라는 데에 관하여는 한마디의 말이 없다. 다만 영원한 죽음은 지옥이라는 말은 하고 있다. 왜냐하면 신앙과 기독교적 희망의 도전적인 특성이 이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논리는 우나무노를 설득하지 못한다. 우나무노에 의하면 루터로부터 칸트에 이르기까지 신앙심의 전형적인 태도란 전지전능한 神을 믿고 우리의 운명을 그에게 완전히 의지하면 분명히 신은 우리에게 은총을 내리고 우리의 永生을 확보해준다는 것이었다. 이런 큰 흐름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 永生이란 것이 어떠한 것이며 어떻게 진전되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끊임 없이 추구하고 탐색하여 왔다.

죽은 후에 어떻게 되리라는 생각없이 永生이란 것을 생각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인간 정신은 어떻게 되고 육체가 없는 순수한 인간의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데카르트는 世界는 思惟와 物質이란 二元的인 도그마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런 二元論은 우나무노를 설득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한 개체인 人格體가 죽,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실종되지 않고 神을 영원히 즐기고 살 수가 있는가? 神을 즐긴다는 것은 무엇이며 시간에 대조되는 영원이란 무엇인가? 영혼은 死後에 變하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 變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는가, 만일 변한다면 그 긴 세월동안 어떻게 自己의 個性을 보존하는가? 永生은 空間을 제거할

12) Miguel de Unamuno; *Mi religión y otros ensayos breves*. Octava edición. Colección Austral, Espasa-Calpe, S.A. 1978, p.10.

수 있으나 時間은 제거하지 못할 것이다. 하늘나라에도 생이 있다면 변화도 있을 것이다. 또 완전히 행복한 永生이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우나무노의 끊임 줄 모르는 神의 영역에 대한 대담한 추구는 바로 우나무노의 종교관을 대변하고 있다. 우나무노는 어떠한 종교적, 신학적 理論도 자기 자신의 직접적인 깨달음과 체험이 없이는 인정할 수가 없다는 태도이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그의 소설, 희곡 등에 잘 나타나 있다. 우나무노의 많은 작품 中에서 그의 신앙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作品이 1931년에 출판된 <순교자 聖마누엘 부에노> (San manuel bueno, mártir)이다. 이 작품의 주인공 마누엘 神父는 우나무노 자신이다. 이것은 모든 우나무노 評者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그러면 우나무노의 신앙문제의 관건이 달려 있으며 우나무노의 가장 深遠한 소설인 이 작품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발베르데·데·루세르나(Valverde de Lucerna)란 작은 마을의 사제인 돈 마누엘은 착하고 자비심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항상 死後의 永生의 문제로 해서 고민을 한다. 그는 사제로서 마땅히 永生에 대한 깊은 신앙을 가져야 하겠지만 不幸하게도 이를 믿지 못한다. 그는 마을 사람들, 즉 그를 존경하고 추종하는 신자들에게 신앙심을 갖고 永生을 믿도록 항상 가르치고 설교하는 데 전념을 한다. 돈 마누엘은 모든 마을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특히 어린이들이 그를 좋아한다. 사람들은 그에게서 성스러운 그 무엇을 감지한다. 그는 성인의 경지에 이르는 人品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를 추종하고 존경하는 信者들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스런 고뇌가 있다. 즉, 죽음에 대한 문제이다. 그는 죽음 후에 무엇이 오는가를 알 수 없으므로 고민을 한다. 그는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 문맹자들, 무지한 이웃들이 죽어갈 때마다 그들이 편안히 죽도록 열심히 도와준다. 그는 그들이 죽어가는 모습에서 죽음이라는 病의 原因을 감지할 수 있었다. 실로 죽음이 가져오는 어두운 심연이야말로 배고픔보다도 몇천 배는 더 무서운 病임을 알고 있다.

어느날 돈 마누엘은 자기의 무거운 고민에서 해방되고자 친한 앙헬라(Angela)와 대화를 한다. 앙헬라는 신부에게 다음과 같이 묻는다:

“—그런데 신부님 믿으십니까?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정신을 가다듬고 내게 말했다:

—믿어!

—그러나 신부님 무엇을 믿으십니까? 저승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죽을 때 완전히 죽어 없어지지 않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저세상에서 다시 만나 서로 사랑하고 살 수가 있을까요? 저승을 믿으십니까?

가련한 성인은 흐느끼고 있었다.

—이것봐, 앙헬라, 제발 그 이야기는 그만 두지.”¹³⁾

그가 마을 주민들과 함께 ‘육체의 부활과 永生을 믿습니다’란 성경의 구절을 함께 외을

13) 우나무노 : 안개, opus cit. pp.82-83.

때면 마치 호수의 심연에 빠지는 듯은 마을사람들이 침묵을 지키는 것이었다.

어느날 돈 마누엘은 그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감지하고 그의 신도들로 하여금 그를 교회로 데려가 함께 기도하도록 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육체의 부활과 永生'의 구절을 외올 때 돈 마누엘은 숨을 거둔다. 돈 마누엘 死後 앙헬라는 다음과 같은 회고의 말을 남긴다:

“내가 이 회고담, 즉 聖人과 함께 지낸 정신적인 체험담을 고백함에 있어, 나는 돈 마누엘 즉, 나의 聖마누엘과 나의 형제인 라사르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을 믿지 못하면서도, 적극적이면서도 포기한 듯한 절망속에서 그것을 믿으며 죽은 것으로 생각된다.……아마도 우리의 주님께서서는 어떤 뜻에서인지, 어떤 성스러운 계약에서 인지는 몰라도 그들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사람으로 믿게 한 것 같다.”¹⁴⁾

그러나 사람이 죽고 나면 인간생명의 수수께끼가 해결되고 결론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강력한 의문이 제기되는 데 문제가 있다.

사람이 죽으면 죽음이 분해되어 그의 內面을 보여주기 보다는 자신속에 문제를 감추면서 답이 없는 문제를 남긴다. 즉 永遠으로부터 침묵만이 우리에게 남게 된다.

VI. 죽음과 영혼불멸

永生에의 집념은 우나무노 哲學의 출발점이다. 萬物은 自己 存在에서 無限定으로 지속하기를 고집한다는 스피노자의 말을 우나무노는 즐겨 인용한다. 영생에 대한 열망은 만물의 본성이며 인간의 경우 意識이 동반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가리켜 우나무노는 神性을 갖고자 하는 욕망이라 부르는 바 自身을 통하여 신성에 도달하려는 것이 아니고 不滅의 보증을 얻으려는 것이다. 이는 흘러가는 인생을 사는 데 필요한 조건인 것이다. 우나무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는 나의 영혼이 不滅임을 필요로 한다. 내 개인적 의식의 무한정한 존속이 必要하다. 이것 없이, 이것에 대한 신앙이 없이 나는 살수가 없으며 이것을 획득하기 위한 과정에서 생성되는 의구심은 나를 괴롭힌다.”¹⁵⁾

인간은 合理的이라고 노력하며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해 알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永生을 믿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죽음을 생각해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우나무노는 理性을 근본적으로 불신하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 理性은 生과 死의 신비를 알아내는 데 적절한 도구가 되지 못한다. 영혼불멸의 문제도 해결이 불가능하다. 반면에 영혼의 限界性은 理性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同時에 죽음의 문제에 관해

14) Miguel de Unamuno; *San Manuel Bueno, mártir y tres historias más*, 5ª edición, Espasa-Calpe S.A. Madrid, 1984, p.57.

15) Julián Marías; *Miguel de Unamuno*, tercera edición, Colección Austral, Espasa-Calpe, Madrid, 1960, pp.199-200.

우나무노는 명상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우나무노의 많은 作品들은 죽음의 문제를 밀도있게 다루고 있다. 이 사실은 우나무노가 그의 작품에서 모든 종교의 핵심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뜻한다. 죽음과 종교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우나무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모든 종교는 역사적으로 불멸 死者들에 대한 경배로부터 출발한다. 즉 불멸에 대한 경배로부터 출발한다.

.....

내가 죽어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 오는가에 의문을 갖는 것은 내 의식의 뒤고있는 맥박인 것이다.”¹⁶⁾

우나무노에 있어 죽음의 문제는 불멸의 문제와 자동적으로 연결된다. 우나무노는 죽음자체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死後의 불멸을 추구하기 때문에 인간이 겪어야 할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가 언젠가는 죽어야 한다는 생각을 함은 실로 피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의 육체가 서서히 분해되는 것을 보고, 서서히 불이 꺼지며 모든 사물이 침묵을 지키게 될 때 그리고 모든 것이 기억에서 사라져 無로 돌아가게 될 때를 생각하면 우리는 전율을 느끼게 된다. 이런 인간의 연약한 點을 나타내기 위해 우나무노는 어느 농부의 죽음을 그 例로 들고 있다. 그 내용인즉 다음과 같다. 어느 농부가 죽었다. 그 마을의 신부는 소정의 의식을 거행하기 위하여 죽은 농부에 다가가서 살펴보니 농부는 그의 오른손에 몇개의 동전을 힘껏 움켜쥐고 있었다. 신부가 동전을 거두려고 하니 죽은 농부는 어떻게 힘있게 동전을 쥐고 있는지 끝내 손을 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일화에 대한 우나무노의 評은 흥미롭다. 즉 “죽은 농부는 죽음에 이르러 자기 손도 이미 자기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도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죽은 것이다.” 이 사실은 비극적이다. 그러나 더욱더 비극적인 사실은 우리가 죽음에서 달아나려고 하면 할수록 죽음은 더욱더 우리에게 접근하며, 죽기 싫다고 절규를 하면 할수록 영혼불멸의 생각은 더욱더 우리에게 고문을 가한다는 사실이다. “죽고 싶지 않다. 죽을 생각을 하고 싶지도 않다. 이 가련한 나는, 나로 느끼는 나는 내 영혼의 영속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안개>의 주인공인 아우구스또가 절규한 것은 죽음을 생각하는 우나무노의 절규다.

우나무노에 있어 죽음을 초월하는 데는 두 가지의 方法이 있다. 첫째는 영혼불멸이요, 둘째는 復活이다. 첫째 方法은 죽지 않는것, 최소한 완전하게 죽지 않는것, 즉 불멸이 되는 것이다. 둘째 방법은 죽음을 전제로 한다. 즉, 죽음 후에 부활하는 것이다.

첫번째의 경우 영속이란 정신적인 것을 말한다. 육체는 죽는고로 영혼의 불멸을 말한다. 둘째는 肉體의 불멸을 전제로 한다. 生을 완전한 사람속에서 부활시키는 것이다. 즉, 죽었던 육체로 다시 돌아와 사는 것이다.

말론(Pedro Malón de Chaide)에 의하면 죽어서 하늘 나라에 가있는 사람들도 가끔 그들

16) Miguel de Unamuno; *Del sentimiento trágico de la vida*, opus cit. p. 36.

의 육체가 없음을 불평한다고 한다. 하늘나라의 榮光도 인간적이 아니면 불편하다는 것이다. 이 성인의 생각이 바로 우나무노의 생각이다. 즉, 영혼도 불멸이어야 하고 부활을 해도 자기 자신의 육체를 가지고 부활해야 한다는 것이다.

VII. 作品에 나타나는 죽음의 묘사

우나무노는 <죽음의 거울>(El espejo de la muerte)이라는 수필집에서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바로 죽음의 위협을 맞아드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나무노의 작품 중에서도 죽음이 가장 절실하게 묘사되고 있는 것은 <전쟁속의 平和>(Paz en la guerra)와 <틀라 아주머니>(La tía Tula)를 들 수 있다.

<전쟁속의 平和>에서는 빠치코·사발비데(Pachico Zabalbide)가 죽음을 걱정하는 장면이 처음 나타난다. 그가 죽음 앞에서 느끼는 것은 無에 대한 미칠 듯한 공포심이며 空한 時間 앞에 홀로 서있어 영원한 空에 떨어지는 것 같은 공포감이다. 빠치코에게 죽음의 모습이란 無였다. 無란 하나의 살아 있는 實在로서 他人들의 철저한 소멸에 자기 자신만이 홀로 남게 되는 것이다. 고로 죽음이란 완벽한 孤獨이다. 즉 죽음이란, 存在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홀로 남는 것이다.

그 다음은 도냐 미카엘라(Doña Micaela)의 죽음이다. 도냐 미카엘라는 전쟁의 와중에서 공포에 질려 두팔을 벌린채 절규를 하며 벼개 위에 쓰러진다. 심장이 파열한 것이다. 世上이 그녀에게서 죽은 것이다. 이로써 그녀의 생전에 고통을 주었던 유명과 공포는 사라진 것이다. 그리하여 결코 끝맺음이 없는 꿈의 영원한 實在 속에서 휴식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이 小說에서 가장 극적이고 격렬한 죽음은 戰場에서 총을 맞고 죽어가는 익나시오(Ignacio)의 죽음이다. 죽음의 묘사를 보자 :

“날이 어두어지자, 익나시오는 호기심에서 참호로부터 몸을 노출하는 순간 자기 어머니가 수놓은 예수의 심장 밑에 뜨끔한 것을 느꼈다. 그는 눈이 캄캄해졌고, 그리고 쓰러졌다. 순간적으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의 앞에 보이던 모든 사물들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깊은 꿈속으로 빠지는 것이었다. 그는 감각을 잃고 기억을 상실했으며 영혼이 잠들어갔다. 그는 아주 짧은 순간동안에 반복되는 幻影 속에서 그의 어린시절이 영상처럼 지나감을 느꼈다.……”

그의 눈은 이미 죽은 生命을 비추어 주었고, 그리고 어머니 大地는 쓰러져 있는 그의 몸에서 피를 삼킨 것이다. 그의 얼굴에는 잠잠한 고요함이 남았고 그가 生命을 정복하는 순간 平和스런 大地 위에서 휴식을 잘 취한 듯한 모습이였다. 그의 옆에서는 전투의 여운이 아직도 일고 있었고 시간의 파도는 영원속에서 산삼이 조각나고 있었다.”¹⁷⁾

以上的 묘사에서 우리의 주의를 끄는 표현은 ‘그가 죽었다’는 표현을 ‘그가 生을 정복했다’(venció la vida)고 표현한 것이다. 이 표현에서 우리는 우나무노의 永續에 대한 집념을

17) Miguel de Unamuno; *Paz en la guerra*, décima edición, Colección Austral, Espasa-Calpe S.A. 1980, pp.189-190.

다시 목격하는 것이다.

〈전쟁중의 平和〉보다 23년 후에 출판된 〈뿔라 아주머니〉에서는 헤르트르디스(Gertrudis) 家에 긴 죽음의 연속이 나타난다. 이 작품에서 가장 우리의 주의를 끄는 죽음은 라미로(Ramiro)의 여인 로사(Rosa)의 죽음이다. 로사의 죽음을 우나무노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그녀는 말이 없었다 힘이 없었다. 애들의 아버지인 남편이 그녀의 손을 잡자, 그녀는 남편이 해면이 없는 넓은 바다속으로 실종되기 위해 떠나는 뱃사공인 듯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멀리 사라져 가는 故鄕의 言語인 먼 둔덕을 쳐다보며, 숨이 막히는 순간에 영원의 가장자리로부터 라미로의 눈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쳐다 보는 모습은 다시는 육지에 돌아오지 않기 위해 떠나는 순간같이 生의 감추어진 의미를 묻는 듯이 절망적이고 지고한 질문같았다.”……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숭고한 순간이 다가왔다. 車를 갈아타는 순간이 온 것이다. 그것은 마치 그녀가 심연에 매달려 영원한 암흑의 칼집아가리 속에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무엇인가에 끌리는 듯, 주저하고 서있는 그녀의 남편을 힘껏 끌어 잡는 것이었다. 가련한 로사는 손톱으로 목을 열려는 듯 했다. 공포에 질려 남편을 쳐다보면서 눈으로 호호하기를 애원하며 눈으로 영혼의 바닥을 갈랑해보며 손을 들더니 그녀의 세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했던 바로 그 침대위로 쓰러지는 것이었다.”¹⁸⁾

위의 묘사에서 우나무노는 ‘해변없는 바다’ ‘암흑’ ‘심연’ 등의 메타포를 구사하면서 죽음의 고독함을 그리고 있다. 죽음은 車를 갈아타는 여행과도 같다. 그러나 그 목적지를 모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철저히 외로운 것이며 完全한 孤獨이다. 우나무노는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우리 인간은 함께 산다. 그러나 죽을 때는 혼자서 죽는다. 죽음이란 숭고한 고독이다.”¹⁹⁾

VIII. 結 論

우나무노는 20세기 스페인 文壇의 大家이며 동시에 哲學의 大家이다. 우나무노는 文學과 哲學을 조화시킨 매우 독창적인 人物이다. 우나무노는 역설적이고 反理性的인 작가이지만 그의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다루고 있는 테마는 哲學의 본질적인 테마와 一致하고 있다. 이런 뜻에서 그를 철학적인 作家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作品들은 그스스로의 資質으로써도 훌륭한 文學作品이다. 그렇다고 우나무노의 作品이 어떤 哲學的인 思想에 詩, 소설, 드라마 등의 의상을 입히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런 함정에 빠지기에는 그는 지나칠 정도로 예술적이고 文學的인 감각을 갖고 있었다.

우나무노는 작품을 구상할 때 순수한 미학적, 예술적 성격의 작품만을 시도하는 것이 아

18) Miguel de Unamuno; *La Tía Tula*, decimoquinta edición, Colección Austral, Espasa-Calpe, S.A. 1981, pp.54-55.

19) Miguel de Unamuno; *La Agonia del Cristianismo*, sexta edición, Colección Austral, Espasa-Calpe, S.A. 1980, p.37.

나라 인제나 그 무엇인가를 제시하려 한다. 그는 死後에 人間의 意識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에 깊은 집착을 한다. 동시에 그의 思惟의 주요한 대상의 하나는 막연한 人類가 아니라, 生動하는 살과 뼈를 가진 사람이다.

우나무노에게 理性은 生의 敵이며 人間의 감정을 살해한다. 고로 우나무노는 理性을 通한 哲學을 하기를 거부한다. 이렇게 理性이 사후의 문제와 내밀한 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우나무노는 소설 드라마 등 文學을 通하여 그의 哲學的 사상을 펼친다. 우나무노에게 허구의 實體는 허구일 때 꿈, 혹은, 소설일 때 實在이며, 자기 홀로 서있는 存在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實體도 神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허구이기 때문에 生과 死는 어디까지나 그 창조자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지 人間의 意志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生의 비극적 감정과 고뇌가 따른다.

고뇌는 不安과 불평의 표현이며 生의 구체적 조건에 적용할 수 없는 데서 오는 것이다. 그러나 고뇌를 함으로써 眞理를 찾고 불멸을 찾게 된다. 우나무노의 生의 비극적 감정은 <안개>에 잘 표현되어 있으며, 生의 비극적 감정과 고뇌의 철학에는 키에르케골과 스피노자의 영향이 크다.

우나무노의 宗教는 神의 存在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人間의 實存을 전제로 한다. 또한 인간의 영혼불멸에 대한 열망이 人間으로 하여금 종교를 갖게 하는 주 원인이 된다.

우나무노는 순수하면서도 무조건적인 신앙을 배격한다. 그는 不可思議, 不可知論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는 永遠한 無知를 거부한다. 이런 그의 사상은 그를 투쟁적인 哲人이 되게 한다. 우나무노의 신앙의 문제는 <순교자, 성마누엘 부에노>에 잘 표출되어 있다.

우나무노는 그 어느 哲人보다도 죽음과 영혼불멸의 문제에 대하여 많은 명상과 思惟를 하였다. 그의 哲學의 주제, 文學의 주제의 주요한 테마의 하나가 死後의 문제이며 영혼불멸의 문제였다.

우나무노에 있어 죽음을 초월하는 두 가지 방법은 영혼불멸과 復活이다.

우나무노는 20세기 스페인이 낳은 위대한 文人이며 哲人이다. 그는 文學을 通하여 哲學을 실현하였고 哲學을 通하여 文學을 실현하는 데 成功함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文學과 哲學의 可能性을 제시하였다.

參 考 文 獻

Miguel de Unamuno:

Abel Sánchez, decimosexta edición, Colección Austral, Espasa-Calpe, Madrid, 1983.

Amor y pedagogía, decimotercera edición, Colección Austral, Espasa-Calpe, Madrid, 1984.

Antología poética, séptima edición, Prólogo de José Ma. de Cossio, Colección Austral,

- Espasa-Calpe, Madrid, 1975.
- Contra estoy aquello*, sexta edición, Colección Austral, Espasa-Calpe, Madrid, 1969.
- Del sentimiento trágico de la vida*, Editorial Plenitud, Madrid, 1965.
- El caballero de la triste figura*, sexta edición, Colección Austral, Espasa-Calpe, Madrid, 1980.
- El espejo de la muerte*, octava edición, Colección Austral, Espasa-Calpe, Madrid, 1976.
- El otro y el hermano Juan*, segunda edición, Espasa-Calpe,
- En torno al casticismo*, décima edición, Colección Austral, Espasa-Calpe, Madrid, 1983.
- La agonía del cristianismo*, sexta edición, Colección Austral, Espasa-Calpe, Madrid, 1980.
- La dignidad humana*, séptima edición, Colección Austral, Espasa-Calpe, Madrid, 1976.
- La tía Tula*, decimoquinta edición, Colección Austral, Espasa-Calpe, Madrid, 1981.
- Mi religión y otros ensayos breves*, octava edición, Colección Austral, Espasa-Calpe, Madrid, 1978.
- Paz en la guerra*, décima edición, Colección Austral, Espasa-Calpe, Madrid, 1980.
- Recuerdos de niñez y de mocedad*, quinta edición, Colección Austral, Espasa-Calpe, Madrid, 1953.
- San Manuel Bueno, mártir y tres historias más*, quinta edición, Colección Austral, Espasa-Calpe, Madrid, 1984.
- Soledad*, séptima edición, Colección Austral, Espasa-Calpe, Madrid, 1981.
- Soliloquios y conversaciones*, séptima edición, Colección Austral, Espasa-Calpe, Madrid, 1979.
- Tres novelas ejemplares y un prólogo*, decimosexta edición, Colección Austral, Espasa-Calpe, Madrid, 1982.
- Vida de Don Quijote y Sancho*, decimoséptima edición, Colección Austral, Espasa-Calpe, Madrid, 1981.
- Viejos y jóvenes*, sexta edición, Colección Austral, Espasa-Calpe, Madrid, 1980.
- Visiones y comentarios*, cuarta edición, Colección Austral, Espasa-Calpe, Madrid, 1967.
- 안개 ; 汎세계문예신서 22, 汎友社, 金顯場譯, 1982.
- Cirarda y Lachiondo, José Maria, Lic. D.; *El modernismo en el pensamiento religioso de Miguel de Unamuno*, segunda edición, Vitoria, Seminario Diocesano, 1948.
- Fernández, Pelayo Hipolito; *Miguel de Unamuno y William James, un paralelo pragmático*, Salamanca, 1961.
- Franco, Andrés; *El teatro de Unamuno*, Editorial Insula, Madrid, 1971.
- Garagorri, Paulino; *La filosofía española en el siglo XX, Unamuno, Ortega, Zubiri*, Alian-

za Editorial, Madrid, 1985.

Gullón, Ricardo; *Autobiografías de Unamuno*, Editorial Gredos, Madrid, 1976.

Marías, Julián; *Filosofía española actual, Unamuno, Ortega, Morente, Zubiri*, quinta edición, Colección Austral, Espasa-Calpe, Madrid, 1973.

Marías, Julián; *Miguel de Unamuno*, tercera edición, Colección Austral, Espasa-Calpe, Madrid, 1960.

Meyer, François; *La ontología de Miguel de Unamuno*, Editorial Gredos, Madrid, 1962.

Unamuno's philosophy and tragical sentiment of life

—a resume—

Hyun-Chang Kim

Unamuno is at once a great author and a philosopher Spain produced at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Unamuno has a very original personality, knowing how to harmonize literature and philosophy. He is also a paradoxical and anti-rational writer, and the theme he treats repeatedly in his writings coincides with the essential philosophical subject. In this sense we can say he is a philosophical author.

His works are, however, remarkable literary ones by their own quality. They are nevertheless no simple literary decoration to the philosophical thinking. Unamuno is much too artistically and literary well-grounded to walk into that trap. When Unamuno writes, he tries to show us something more; for example he is haunted by the problem of human conscience after death. At the same time, his meditation centres on the man of flesh and bones, not on the abstract humanity.

Reason is an enemy of life for Unamuno. For this he refuses to express his philosophy through reason. Arriving at the conclusion that reason can't solve the problems of life and death, Unamuno chooses novel and drama, in other words, literature, as a means to express his philosophy.

Inconvenience, life's difficulties are the causes of anguish, and anguish appears when one can't adapt oneself to the conditions of life. However it is through anguish we can arrive at truth and immortality. The tragical sentiment of life of Unamuno manifests itself when the author comes to realize that life and death depend on the Creator and not on himself. This doctrine has been made clear in "Niebla". This novel represents very well the philosophy of Unamuno's tragical sentiment of life.

According to Unamuno, religion presupposes the existence of man, not of God. The human desire to have the immortality of the soul makes man create religion. Unamuno refuses pure and unconditional faith. Eternal ignorance is not acceptable for Unamuno. You have to fight until death to conquer the mystery of life. This problem of faith is well expressed in "San Manuel bueno, mártir."

Unamuno has meditated much on death. His meditation is especially concentrated on the immortality of the soul. For Unamuno two means exist to conquer death: the first is immortality and the second resurrection. As far as his existentialism is concerned, he has been deeply influenced by Kierkegaard and Spinoza.

Unamuno has realized his literature through philosophy and his philosophy through literature. Completing this monumental work he has shown us the new horizon literature and philosophy can have.